

(주소) 1707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전화) 031-270-8601 (팩스) 031-283-5364

배 포 일	2025.04.01(화)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5.04.02(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 공유학교 운영		2	2	gcm.ggcf.kr	부서 : 학예운영실 담당 : 김수성 전화 : 031-270-863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운영

▶ 4월 5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AI 활용 ‘우리가 만드는 DMZ 이야기’ 교육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상반기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DMZ 이야기’를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우리가 만드는 DMZ 이야기’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DMZ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으로, 12차시로 구성된 4주 과정이다.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들이 AI 활용시 필요한 디지털 윤리를 학습하고, 전시 관람을 통해 얻은 DMZ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DMZ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만드는 DMZ 이야기’ 교육 참여 대상은 용인 지역 초등학교 3~4학년생으로,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 모집된 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주차에서는 자기소개와 조별 활동을 통해 DMZ에 대해 배우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인 ‘두 개의 DMZ’를 체험하며 그림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주차에서는 그림책 집필 방법을 배우고, DMZ에 관한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고, 정한 주제를 스토리보드로 구체화한다. 3주차에서는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학습한 뒤,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실습을 진행한다.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을 배우고, AI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 구상한 그림책을 위해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AI 도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4주차에서는 완성된 스토리보드 내용을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책 형식으로 만들고, 각 조원들이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을 기획한 김수성 학예연구사는 “이번 수업은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AI의 올바른 활용법을 배우고, 창의력을 더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과정과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송문희 관장은 “이번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기회”라며, “어린이들이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년도 하반기 ‘우리가 만드는 DMZ 이야기’ 교육 사진>



※ 사진제공 : 경기도어린이박물관